

# 광주, 민주·인권도시 맞나...미얀마·아프간 '인권 유린' 침묵

## UN·유네스코 등 제안 세계인권도시포럼 프로그램 확정 전문가 부재 등 이유 들어 개최 직전 취소 인권단체 반발

민주·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매년 세계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면서도, 정작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유린' 사태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개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UN과 유네스코 등의 제안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탄압과 미얀마 사태 등을 포럼 프로그램으로 확정해 놓고도 포럼 개최 직전 '전문가 부재' 등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프로그램을 취소. 인권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분쟁중이거나 진행중인, 이른바 민감한 국제인권 문제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단체들은 "인권 문제는 현재 고통받고 있고, 힘

들어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주최로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일 폐막했다. 올해 국내외 46개 협력기관과 110여 개 도시에서 5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2011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자치단체 주도로 세계인권문제를 다루는 세계 유일의 포럼이다. 그동안 투입한 순수 프로그램 예산만(시설비 등 제외) 54억원에 이른다.

시는 올해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을 포럼 주제로, 세계인권도시들이 연대해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직된 폭력과 재난에 맞서기로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올해 포럼을 바라보는 인권단체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재 세계적인 관심사인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선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UN 등에서 제안한 관련 프로그램마저 포럼 직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포럼에서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안에 따라 미얀마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미얀마 사태 지원과 국제적 연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하 루전인 지난 5일 갑자기 연기했다. UN측 미얀마 특별보좌관이 '실시간 영상 참여가 어렵고, 영상녹화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해명이다. 이번 포럼의 또 다른 참여단체였던 미얀마 광주 연대측은 "미리 광주시에 '5·18과 이행기(독재사 회에서 민주화로 바뀌는 과정) 정의'를 주제로 발표자료까지 제출했다"며 "미얀마의 실태를 세계인 권도시들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추후 개최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는 또 유네스코의 제안으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럼 직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민주인권평 화국 관계자는 "유네스코 등에서 참여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는 등 적극 협조하지 않아 취소하게 됐다"며 "특히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국제적으로 민감 하고 진행중인 인권문제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미얀마 문제 등 UN 등이

먼저 제안해 사전 행사 성격으로 준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광주시의 해명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계인권도시포럼 태동의 근간이 되는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세계적 인권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인권문제 개입 여부 등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광주의 한 인권활동가는 "과거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암묵히 말하면 인권 관련 역사 연구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4박 5일의 기간동안 현재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탄압 문제를 한차례도 다루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내년 포럼부터라도 그 시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세방리튬배터리 광주공장 준공식

일시: 2021년 10월 13일 14:00 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56번로 65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후 광산구 평동2차산업단지에서 열린 세방리튬배터리㈜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상용 세방그룹 회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조석호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과 준공식 행사를 하고 있다.

## 세방리튬배터리 광주 평동산단 공장 준공

### 42만대 전기차 배터리팩 생산

세방리튬배터리(주)의 전기차용 배터리팩 공장 준공식이 13일 광주 평동 2차산업단지에서 열렸다. 준공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조석호 시의회 부 의장·이상용 세방그룹 회장·차주호 세방리튬배터리 대표이사·김삼호 광산구청장·이영훈 광산구의 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세방리튬배터리는 연속전지 시장점유율 국내 1 위 업체인 세방전지의 자회사로 자동차 빌트인 카 메라 보조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모듈 제작 기술을 갖추고 있다. 지난 1월 광주시와 12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을 건립하는 투자 협약을 했다. 착공 6개월 만인 지난 6월 건립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운전 중이다. 내년 2월부터 연간 42만대의 전 기차 배터리팩을 생산한다. 공장 가동으로 일자리 250개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조립 설비를 구축했다. 세방리튬배터리는 광주공장을 해외시장 수출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꾸려 행정 지원,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을 약속하며 투자 유치에 노력했다. 평동2산단과 인접한 빛그린산단의 친환경 자동차부품인증센터와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과의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선도시 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용섭 시장은 "세방리튬배터리가 친환경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고 '광주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 한다'는 대명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메이드인 광주'의 배터 리가 최고 명품 배터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시민불편 최소화”

###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도시철 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2호선 건설사업이 속도 를 내면서 도심 곳곳에서 많은 공사가 진행 중인 데, 어느 정도의 교통체증과 불편은 불가피한 측면 이 있지만 지금 일부 구간은 교통체증과 혼잡이 심 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실국은 경찰청과 자치경찰 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교통불편 최소화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날 오후 광주노인회관에서 대한 노인회 광주시연합회 초청 강연을 갖고 “어르신들 은 돌봄을 받는 부양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혜로운 선배 시민으로서 의향 광주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게 살 수 있도록 후세대를 위해 적극 가르침을 주시 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탄력

### 광주지법, 한양 가치분 신청 기각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사업도 탄 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 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양이 특수목적법인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양은 제안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 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사업 수행 을 위해 출자지분을 한양 30%, 우빈 25% 케이엔 지스틸 24%, 파크엔 21%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 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 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 측은 지난 4월 롯데건 설을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양 측은 광주시장과의 특례사업 협약 체결, 공 동사업약정, 광주시 사업참여제안서, 법인 정관 등 에 의하면 한양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도급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 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공동사업약정과 제안 서, 특례사업협약만으로는 한양 측이 법인으로부 터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기대권 등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업제안서에 한양의 역할이 시 공사라고 기재됐다고 해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 라고 보기 어렵고, '발기인들은 민간공원 추진자 로서 이 회사를 설립해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근린공원 1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 다'는 법인 정관만으로는 컨소시엄의 법률관계를 승계하는 명시적인 문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 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

## 전남도, 덴마크 터빈기업 공장 유치 잔결음

### '베스타스' 시장조사단과 실무협의

전남도가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덴마크의 풍력발 전기 터빈 기업과 함께 도내 공장 설립을 통한 투 자 실현을 위한 실무협의를 들어갔다. 전남도는 13일 "지난 12일 덴마크 풍력발전기 기업 베스타스와 도내 해상풍력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터빈공장 설립 등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고 밝 혔다. 이날 회의는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 한 도 관계자와 베스타스 모든 부회장, 같은 부 사장, 스단 부사장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베스 타스 시장조사단의 이번 방문은 한국시장에 대

한 투자 검토를 위한 시장조사 목적으로 이뤄졌 다. 모든 부회장은 전남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 황과 도내 공장 부지 및 투자 여건 등에 대해 질문 하고, 전남도와 베스타스 간 해상풍력 협력 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했다. 모든 부회장 등 베스타스 시장조사단은 실무협의를 마치고 목 포신항을 찾아 터빈공장 부지 등 투자 여건을 살핀 후 "목포신항의 접근성 및 부지 여건 등이 터빈공 장 부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베스타스는 이번 시장조사 결과와 국내 터빈 발 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투자 시기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목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b>총 계</b>		<b>93</b>	<b>29</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목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